

## 제33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고타리 스스무

소속: 시즈오카대학 교수

주제: 한류와 한일관계

일시: 2006년 03월 21일 (12:00 - 14:00)

### \*강연내용

1999년을 전후로 중국, 타이완, 홍콩 등에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동아시아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보급은, 기존의 대중문화 교류가 일본과 홍콩에서 기타국가로, 한 방향으로 흐르던 것에 비해 상호교류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국경을 초월한 유통의 요인은 크게 정치적 요인(수입국의 규제와 수출국의 촉진 정책), 경제적 요인(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규모 차이, 수입국의 경제수준, 수입국의 구산 대중문화 공급 능력), 사회적 요인(수출국과 수입국의 인적 교류), 문화적 요인(수출국과 수입국의 문화적 유사성, 수출국에 대한 동경), 기술적 요인(정보기술의 발전, 수출국과 수입국의 제작수준 차이)으로 결정된다.

또한, 문화와 정보의 흐름을 결정하는 3요소로는 국내시장의 규모, 인적 자본,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 이것은 국내 시장규모가 클수록 한 가지 소프트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 이것을 다시 다른 소프트의 제작에 투입할 수 있고, 노하우와 기술, 센스 등을 가진 인재가 얼마나 있는가가 그 소프트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와 발신자의 문화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문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류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 김대중 정권 이후 정부의 다양한 문화산업 지원과 문화인·민간 기업의 적극적 노력 등이 있었다. 일본이 문화 면에 있어, 특히 영상 소프트 분야, 그 중에서도 TV프로그램에서 아시아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것도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위성방송,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발달과 보급,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신중간층의 출현, 각국 대중문화의 상호보완성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문화 유통을 유발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대중문화의 유통이 중요한 이유는 (자료에 소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대국 대중문화에 자주 접한 사람은 상대국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을 상대국문화에 접촉함으로써(원인) 상대국에 대해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결과) 라고 간단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 처음부터 상대국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원인)일수록, 상대국 대중문화에 접촉하는 경향이 강한(결과)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중문화의 교류는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하나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조셉 나이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력에 의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으로, 국가의 문화, 정치적 이상, 정책의 매력에 의해 싹튼다. 대중문화는 개인주의, 소비자의 선택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관한 이미지나 메시지를 무의식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조셉 나이는 밝히고 있다. Japanization, 한류 등, 상호 대중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친근감 및 호의 조성, 상호이해의 향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잠재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최근 고이즈미 외교의 무신경과 노무현 정권의 과잉반응으로 인해, 급속도로 뻗어가던 한류 물결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한류를 방해하는 정치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을 크게 당황시켰고, 많은 한일 교류 활동이 중지되었다. 국가나 지역 간의 친근감, 호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대중 문화를 접촉하는 것이 친근감이나 호의 조성으로 이어지는지는 분명하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국, 지역이 대중문화 상호유통의 촉진을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는 있다.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류의 경제효과만을 강조하거나, 국위를 선양한다고 강조하기 보다는 한류가 가지는 소프트 파워를 기대해야 한다. 또 외국 문화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으로써, 상호보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